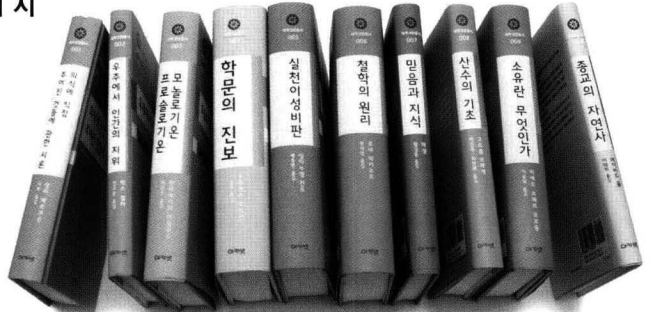


# 대우재단

## 대우학술총서, 석학연속강좌 자료집, 대우고전총서

자금, 기획, 출판 3자 협업체제 모델 제시



### 천덕꾸러기 기초학문 육성 취지로 시작

일반도서를 내는 출판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판에 학술출판사가 느끼는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일반인은 물론이요, 학계의 시선도 응용학문쪽에 쏠려 있는 형편이니 기초학문을 소개하는 학술출판사는 오죽하랴.

인문학부터 화학,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들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은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니 1980년대부터 “국내 기초학문과 연구자들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대우재단의 학술총서 지원사업은 당시로선 학계, 출판계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대우재단은 응용학문이 빛을 볼 것이라는 여러 예고에도 불구하고, 학술도서 분야에 200억 원대를 쾌척해 책의 간행을 도왔다. 그렇게 출간된 책이 2001년에 500권을 돌파, 올해 출간본(2004년 9월 현재)까지 치면 총 570권이다.

### 기업 해체, 출판사 변경 등 난관 헤쳐가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의 사재 출연으로 시작된 대우학술총서는 1983년에 첫 책을 출간했다.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나온 《한국어의 계통》이 그것. 이후 대우재단의 지원사업은 계속되었고, 출판작업도 첫 책을 출간한 민음사를 통해 계속됐다. 그러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대우재단의 모그룹인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회장 김우중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난관을 겪으며 대우재단의 사업방향도 여러모로 변화의 기류를 탔다.

사업주체인 대우재단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총서간행을 책임진 출판쪽에도 변화가 있었다. 총서를 간행해 온 민음사가 1999년 총서간행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그후 대우학술총서는 아르게 출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아카넷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시작했다.

### 기뻐현상 겪는 학술계에 단비 같은 책

그러나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대우재단의 뜻은 기업이 해체되도 퇴색되지 않았다. 특히 IMF 지원체제 이후에도 김우중 씨는 사재를 출연하며 “부진한 기초 학술분야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렇게 조성된 돈은 고스란히 출판사업에만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동안 대우학술총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침체된 학술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총서란

이름을 달고 나온 책들이 각종 저술상을 휩쓸었으니 국내 학계와 기초학문 육성에 상당한 이바지를 한 셈이다. 1986년 《한국지질론》이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을 받은 이후 《홍대용 평전》(1987년 한국출판문화상), 《한국농학사》(1989년 월봉학술상), 《자유주의 원리와 역사》(1992년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마키아벨리 평전》(2000년 가담학술상 번역상) 등이 효자노릇을 한 책들로 손꼽힌다.

### 협업체제로 석학자료와 동양고전까지

2000년 이후 대우재단과 아카넷은 대우학술총서 외에 또 다른 학술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대우재단에서 출판 제작비를 지원, 한국학술협의회에서 기획 및 지원심사를 하고, 출판은 아카넷이 맡는 삼자 협업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학술협의회(이사장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0년부터 시작한 석학연속강좌를 출판사업으로 이어갔다. 석학연속강좌는 국내외 유명 석학들이 참가한 세미나를 갖기도 하며, 이때 공개된 자료들은 아카넷에서 출판된다. 한편 협업으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사업은 ‘대우고전총서’ 출간이다. 협의회와 출판사측은 그리스어, 라틴어로 된 서양고전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대우고전총서’란 이름으로 10권의 책이 나온 상태다

아카넷의 정연재 출판팀장은 “대우총서는 대학가에서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담보돼 있는 책들로 인식돼 있다”며 “향후에도 대우학술총서, 석학연속강좌 출판물, 대우고전총서 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필우**

취재 | 김청연 기자

